



◇정원식 씨 ◇조순 씨 ◇박찬중 씨

편견없는 종교정책 등 피력

BBS, 서울시장 후보 '빅3' 초청대담

6·27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으고있는 서울시장후보 3명은 '종교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교방송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정원식(민자)·조순(민주)·박찬중(무소속)씨를 서울시장 후보 3인을 '불국토의 아침'에 초청 각 후보 특별대담을 벌였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정원식(민자당)후보는 "내가 믿는 종교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종교도 소중하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장 기본 방향으로는 "어떤종교에도 의지할수있는 종교중도를 만들어 내일을 위한 대비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조순후보는 초청되어 "다종교사회인 만큼 종교정책은 편견이 없는 견지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의토록 하겠다"며 불자임을 밝혔다. 또 "전통문화를 일깨우는 문화시화 화중에 적극적으로 힘써 서울을 세계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박찬중후보는 "벌어서 내내암에서 고시공부했다"며 "서울을 세계의 중심도시로 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종교관련내용은 언급이 없었으나 그는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다.

3일간 열린 불교방송 정책대담에서 세명의 시장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치안, 교통, 환경, 시설안전, 문화를 우선순위로 내세웠으며 종교정책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7승 퀴즈왕 2명 탄생 BBS '퀴즈대장경'

불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퀴즈대장경에서 영예의 7승을 한 퀴즈왕이 탄생했다. 지난달 24일 불교방송국에서 7승을 한 나명숙(34세)씨와 김재철(27세)씨에게 특별상금을 전달한 포교위원장 재원스님은 "앞으

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불법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했다.

나명숙씨는 주부로서 매일 불교방송을 청취하며 공부를 해왔으며 다른 퀴즈왕인 김재철씨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며 경전도 읽고있으며 고시에 합격하면 불교공부에 심취해 불 계획이라고.

신행·정보화 주력 청취자 '붙들기'

BBS 프로 개편 1개월

'도반을 찾습니다' 신선미로 인기 끌어

지난달 1일 단행된 불교방송이 프로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인 11개의 프로들이 방송 1개월을 넘기며 점차 청취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들 신선프로는 전국화방송 원년과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신행실천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취자의 입맛 맞추기에 전념하고 있다.

목요일에 이상훈씨가 진행하는 '생방송 도반을 찾습니다'(14:10~15:00)는 이번 개편이후 가장 호응을 받는 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교복지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숨은 자원봉사자의 활약을 소개하며 뜻을 같이하는 도반을 찾아 인

연시켜주는 것이 이프로의 핵심.즉석 전화 팩스도 받고 1분 광고도 마련하여 청취자와 가까이 가고 있다.

월화 다큐멘터리 '바로 보는 불교 역사'(14:10~15:00)는 김태영법사의 진행으로 왜곡된 불교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며 고종관념을 뒤집고 불교를 바로세우는 프로로 학계에게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괴승, 요승으로 왜곡된 신론 모친스님의 진실을 재검토하는 등 역사의 오해를 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진단과 풍부한 자료제시등이 언제나 속도로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불교방송의 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방송가 안팎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16여명의 보도국기자와 14명의 편성제작부의 PD로는 프로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PD들이 3~4개의 프로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흑사관을 강요할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불법홍포를 내세우며 설립된 불교방송인만큼 자원이 한정되고 일반인들까지도 함께할 수없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폭넓은 층을 확보할때 불교방송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연기영교수



◇김광석씨



◇유정길씨



◇법현스님



◇최영준씨

남기도 한다.

또 초·중·고·대학·청년회를 찾아 나서는 젊은 불교의 현장 '인제나 푸른불교'

(14:10~15:00)도 현장성으로 청취자들에게 인기를 보태고 있다. 이밖에 정보와 음악, 환경 프로도 갈수록 신선도를 더

김원우 기자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 참여

불교TV 기자간담회, "정상화 추세"

불교텔레비전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8일 개국 1백일을 맞아 현재의 추진현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호 경영관리국장은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총 32만6천6백46명이라고 밝히고 컨버터의 공급불량 확보로 6월말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안정세에 들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5월부터 유료방송화되면서 컨버터 1개당 bn 본래액은 252 원7전이 배당되고 CATV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참여로 경제적인 부분도 조기 정

상화될 전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bn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광고 5천만원, 영상사업부 6천만원, 수신료 2천만원 등의 고정 수입이 있으며 월지출은 7억5천만원으로 월6억2천만원의 경영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제2차 불자주식공모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CD비전 제작

유니버설사와 계약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지난달 27일 유니버설레코드사와 클래식 CD비전 제작 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 하이라이프

btn ch32

학도병 출신 육군노인 연기

지비의 천수천안 (6월 11:10~12:00) 19살에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19년간 군에서 보낸 청춘뒤에 남은 운수정 활아 버지의 비를여진 육체, 절망으로 가득한 예순 셋의 인생이야기를 소개한다.

김청모녀 신행생활 소개

김병조의 스타쇼 (7월 11:10~12:00) 강한 성격과 역으로 널리 알려진 김청과 어머니를 초대한다. 김청모녀의 삶의 애환과 따뜻한 사랑이야기 그리고 부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지내며 모습을 소개한다.

국군정병들의 고민거리

특집TV 신행생활 (8월 11:10~12:00)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조국수호에 여념이 없는 국군정병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여보는 시간을 갖는다.

BBS

FM 101.9MHz (부산) FM 88.9MHz (부산) FM 88.7MHz (대구)

민주정치와 불교사상

오늘을 이끄는 불교 (5월 11:10~11:20) 불교와 정치 특히 민주정치와 불교사상적 배경에 대해 민병천교수(동국대 정치학과)를 초대해 듣는다.

'제행무상' 알기쉽게 풀이

교리강좌 (7월 06:40~07:00) '모든 것은 바뀐다' 삼법의 하나인 '제행무상'에 관해 알아본다. 이광래교수(충남대학교 철학과)가 진행한다.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걸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종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두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품의 나라를 편다

• 본사: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267-18
• 전화: (02)308-1818-9, 303-7376, 372-7941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에리사 그레이, 그레햄 벨보다 한시간 늦게 전화 발명에 성공— 하지만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세계일류

삼성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 전화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지 한시간 후— 에리사 그레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발명품으로 특허를 신청. 하지만 에리사 그레이란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2등이었습니다.

기업간의 국제경쟁은 전쟁— 전쟁에서 2등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 반드시 세계일류기업이 되겠습니다. 품질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공익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일류— 삼성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SAMSUNG

삼성

사진은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햄 벨 (왼쪽) 에리사 그레이